

등록번호 충남 라01136(1998.6.1)
E-mail: 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culturegj.or.kr
통권 제267호 2008년 1-2호

CONTENTS

차례

公州의 어제와 오늘 _ 2

신년사 _ 3

웅진칼럼 _ 7

- 금강- 세 가지 문제점 _ 김광욱

공주시 의회를 찾아서⑥ _ 10

- 임성란 의원

특집(I) _ 16

-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⑨/ 장길수

특집(II) _ 16

- 따뜻한 공주시립 이야기/ 나태주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⑥ _ 19

- 한국여성농업인 공주시연합회 / 김춘원

향토사료 _ 21

- 삼충기적비문 / 편집부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_ 25

- 공주시 웅진동

공주의 인물 _ 32

- 성암이철영

내고장 소식 _ 34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미담

예술의 향기 _ 50

문화원 소식 _ 56

백일장 _ 62



公州의 어제와 오늘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1970년대 공주 농업고 시절 정문



공주 생명과학고
1933년에 개교하여
1951년 공주농고로 승격,
2006년 3월 1일에
공주생명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한
공주 농업의 요람이다.



생명과학고 정문



先天下之憂 後天下之樂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민족의 영산 계룡산 영봉 동녘으로부터 서기 어린 햇살이 온 누리를 비추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희망과 국운융성의 여명과 함께 무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실용의 새 정부” 출범의 원년인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훌륭히 성취되시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와 공주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는 가장 보람차고 값진 새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성신(星辰)의 어김없는 법도에 따라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행복을 염원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마음에 여유조차 없이 여기저기에서 한숨소리만 들려왔는데 지난 17대의 대선결과로 희망의 찬가가 들려오는 듯하여 다소의 마음에 여유를 찾은 것 같아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 시각으로 볼 때 국내적으로는 뜻하지 않았던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사고는 아직도 수습이 덜 되어 아픔을 주고 있지만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희망을 주었고 지역적으로는 공주대학교의 문제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넘어 지역간의 갈등과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사필귀정”이란 진리처럼 다행히 교육부가 신청서 자체를 반려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며 또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주와 부여가 함께 노력한 제53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룬 한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만 공주시민 모두가 단합된 뜻과 의지로 협조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것이 우리 공주인의 참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어서 항상 지역의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안해결을 위하여 즉흥적으로 급조되는 조직으로 인하여 결집된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무자년의 금년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해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올 한해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냐? 아니면 수십 년의 퇴보를 할 것이냐? 하는 국가의 명운이 이제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참 뜻을 올바르게 읽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경기침체와 계층간의 극한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대선으로 인한 대립을 포용과 화합으로 승화시켜 국민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정책,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정책,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심 속을 파고드는 정책, 현란한 말보다 정책을 앞세워 묵묵히 일하는 나라의 어른다운 대통령이 진정으로 필요한 해입니다. 또한 금년은 제18대 총선이 실시되는 만큼 우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량을 선택하는 일도 어느 일 못지않게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선거 때마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舉)라는 말처럼 천하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있다는 고사를 떠올려 보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오늘의 국민적 고통분담의 불행을 초래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적 자성(自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번져 있는 자만과 교태와 허영과 낭비에서 비롯된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해이로 인하여 마침내 집단, 또는 개개인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계층간 갈등에서 초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키거나 좌시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짊어 지어야 할 십자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발판을 이룩하여 위대한 한국인의 강인한 공동체 의식과 저력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망각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국운도 때로는 정체가거나 실기를 하면 그 민족은 급기야 공전퇴보 하듯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 민족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여 끝내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실상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력히 보아 왔듯이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고 성찰하여 광정에 충실해야만 하겠습니다.

선천하지우(先天下之憂)하고 후천하지락(後天下之樂)의 공자말씀을 되새기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후에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애국적 민주시민의 자세만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는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원에서는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는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신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무자년은 灌水施肥의 해가 되도록...

이준원 공주시장

오늘 무자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우리지역의 지도층 인사 여러분과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배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보람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13만 공주시민과 출향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민하며 노력해온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시범사업, 제2기 신활력 지역 공모사업, 유구 자카드 Biz-polis 사업, 비점오염원 삭감시설 시범사업, 충청남도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이 국·도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IPv6 기반구축 시범사업,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 지리정보시스템 등 첨단정보화사업이 선정되어 공주 U-city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등 소중한 성과들을 일구어 낸 알찬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과 슬기로운 지혜로써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곤은 일침으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는 풍년농사를 위해 낱알을 고르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耕田播種의 농심(農心)으로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 건설을 위하여 희망의 씨앗을 뿌린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난해에 뿌려놓은 공주발전의 희망의 씨앗이 잘 발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대고 충분한 영양분을 주는 灌水施肥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모든 시정이 시민 여러분께 행복을 안겨 드리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주시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을 놓아 간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며,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난해 공주시정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시정에 항상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13만 공주시민과 출향인사 모두가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의 공주, 행복한 시민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과 활기에 찬 2008년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시민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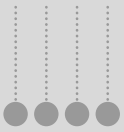
먼저, 지난 한 해 우리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대 공주시의회는 그동안 “희망의 공주, 행복한 시민”을 의정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공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좀더 시민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광 욱 —

- _ 현) <사>금강FM방송 사무국장
- _ 현) 공주영성대학 부속실장
- _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졸업
- _ 공주영성대학 사무관리 과장,
교육지원 과장
- _ 학교법인 인산학원 법인과장,
법인부국장

‘사랑’과 ‘위함’의 문화를 가꾸자

‘사랑’과 ‘위함’이라는 단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려면 위하야 하고 위하야 사랑을 받을 수 있기에 말입니다.

살면서 사랑과 위함의 빛깔은 어떤 빛깔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낮엔 하얗고 밤엔 까맣다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사랑과 위함은 “평화와 행복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사랑과 위함의 중심 빛깔은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빛깔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테러와 폭력, 분쟁과 재난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냉전시대에는 냉전시대만 끝나면 평화와 행복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냉전시대가 끝난 지금 평화와 행복은 우리 곁에 찾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각종 테러와 폭력, 분쟁과 재난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정성껏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위함의 발을 일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핵심가치로 한 사랑과 위함의 문화가 꾸기는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언젠가 혼



탁한 사회에 한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사회 변혁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심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해야 할 이 사랑과 위함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먼저 원대한 뜻보다는 주위의 작은 것들을 둘러보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위함의 문화 가꾸기를 통해 참된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각박하고 거짓과 패악이 판치는 악한 사회와 세계 속에 참된 소망을 하나씩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과 위함의 문화가 지니는 힘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위력이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공포를 안겨주고 파멸과 심판을 가져오지만, 사랑과 위함은 인간을 죽음이나 절망으로부터 소망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힘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분쟁과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세계를 하나의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무력을 수반한 힘이 아니라 사랑과 위함의 문화의 힘 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태안지역 해상에서의 기름유출 피해사건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적을 일구어낸 자원봉사자의 힘의 원천도 사실은 사랑과 위함의 나눔 문화가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위함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살맛을 잃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로 인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정성어린 사랑과 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과 위함이 아니고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하나의 세계를 결코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랑과 위함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랑과 위함에 의해서 살고, 사랑과 위함을 남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아닐까요?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도 얼마나



열심히 내용 있고 충실하게 사랑하며 위하여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위함의 문화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내가 인류와 세계를 위해 있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있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 있다는 입장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때 비로소 평화롭고 행복한 자아를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평화롭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돈으로 부패하고 쾌락으로 타락하고 참된 가치관을 상실해가는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이루기 위해, 사랑과 위함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그 파동을 일으키는 송신기 같은 자체가 되어 보지 않으실래요?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이 사랑과 위함의 문화 가꾸기는 미래를 여는 희망의 빛과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공주문화」는 공주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조길행 공주시의회 의원과 박종숙 의원을 만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

임성란 공주시의회 의원
“공부하며 시정봉사하는 의원이 되겠다”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 총선에서 화제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여성비례대표 임성란 의원이다. 임성란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깨끗한 이미지로 차별화해 정책대결을 할 수 있다고 열심히 땀 결과 30%의 정당득표를 얻어 냈다. 첫 여성시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남성시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의정활동을 조율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여성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나섰다”고 의미 있게 말문을 열었다.

2008년 새해를 맞아 1년7개월간의 의정생활을 밝히면서 “취임선서를 할 때 시민의 대변자, 지역 일꾼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나 정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문을 연 뒤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예년보다 많이 깎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명했다.

겨울철 대민봉사활동을 펼치는 임성란 의원



지난 4월18일 제103회 임시회를 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박종숙 의원이, 부 위원장에는 임성란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심사는 어머니의 자상함과 섬세함으로 심사하기 위해 여성 의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 이 색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공주대 교명변경문제로 시와 대학,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첨예하게 갈등으로 대립되었으나 다행히 신청서 반려로 한시를 놓기는 했으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서두를 꺼낸 뒤 “현재 공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 주민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시와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발전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임 의원은 이어 “공주시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소망한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여성복지사업 등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시책사업의 반영·정착이 가능토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의지를 피력했다.

임성란 의원은 한나라당 공주당협 여성위원장(현), 공주영명고등학교 자모회 임원(현), 공주중동초등학교 자모회장, 공주시 기부 심사위원회 위원(현), 공주시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위원(현), 공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현),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현)을 맡아 공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할까?

신용희 | 명예기자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9)

장길수

—봉황중학교 교장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2. 원터와 땅이름

원터란 원(院)이 있었던 곳을 말한다. 원은 조선시대에 역과 역 사이에 설치하였던 기관으로 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원은 주요한 요로(要路)나 인적이 드문 곳에 두어 출장 공무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일종의 공용 여관이였다. 후에는 일반인도 유숙하게 되었다.

원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주(院主)를 두어 경영했으며 대로변에 있는 것은 원주에게 1결(結) 35부(負), 중로변은 90부, 소로변은 45부의 토지를 주어 원을 유지하게 하였다.

결이란 수확량을 표준하여 전지(田地)의 면적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의 표준을 삼았던 양전척(量田尺)이다. 1결은 1등전의 경우 2,753평이며, 5등전의 경우 6,897평이며, 1결은 100부이다.

이태원, 광혜원, 신례원 등은 그 기능을 바탕으로 발전된 도시들이다. 원과 관련된 땅이름은 ○○원(이태원, 신

례원 등), 원○(원동, 원터 등)의 형태로 원의 의미가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며, 보통골(←보통원)처럼 원이란 말은 없어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형태도 있다. 공주 지역에도 원이 많이 있었으며, 그것과 관련된 땅이름도 많이 남아있다.

1) 공수원(公須院)

공수원은 우성면 용봉리에 있는 마을로 36번 국도가 통과하며, 청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공수원사거리를 이루며 교통이 편리하여 서쪽으로는 청양, 동쪽으로 공주, 북쪽으로 신평, 남쪽으로 어천리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교통의 여건으로 예로부터 원이 있었으며, 공주에서 원의 이름을 간직한 유일한 원(院)터이다. 이곳에는 원래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던 공서원(公西院)이 있었던 곳이다. 공주의 서쪽에 자리한 원이란 뜻으로 공서원이라 불린 듯하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공서원이란 명칭은



‘공수원사거리’ 도로표지판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수원이라 부르고 있다.

공수원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공수전(公須田)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수전이란 고려시대에 각 관청의 건물 수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의 숙박·접대 등의 경비로 주(州)·현(縣)·역(驛)·관(館) 등에 나누어 지급한 토지이다. 따라서 공수원이란 공수전이 있는 원이란 뜻이다. 원래 이름인 공서원보다 공수원이 땅이름으로 굳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2) 모로원(毛老院)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백과사전인 증보문헌비고(1908)란 책이 있다. 이 책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뻗어간 역로와 각 역 및 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공주 지방에도 많은 역과 원이 기록되어 있다. 공주 지방의 역로 중 첫 분기점이 나타나는 곳이 모로원(毛老院)이다. 이곳에서 역로는 남쪽 길과 서남쪽 길로 분기한다.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일신역을 거쳐 공주에 이르게 된다.

서남쪽 길은 동천(銅川)을 거쳐 은산, 한산(韓山)에 이르는 길과, 동천(銅川)에서 정산(定山)에 이르는 길로 나누어진다. 이로 미루어보면 모로원은 교통상 중요한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로원은 오늘날 모란으로 불리고 있으며, 원터의 위치는 정안면 상룡리 원터 마을로 추정하고 있다. 군지(1957년)는 모로원을 의당면 요룡리라 기록하였다.

3) 궁원(弓院, 활원)

정안면 장원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전에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궁원’이라는 원집이 있었던 곳이라 궁원리라 하였다. 일설에는 이곳의 지형이 활처럼 생겼기 때문에 활원이라 하였는데 활이 한자화 되면서 활 궁(弓)자를 써서 궁원이라 부른다고 한다. 새로운 길이 서쪽으로 생기면서 궁원도 서쪽으로 옮겨졌고, 이때 궁원과 함께 땅이름도 옮겨짐에 따라 원래의 궁원



공주 부근의 역로(대동여지도) : 공서원, 모로원, 궁원 등의 원과 일신, 단평, 유구역 등이 보인다

을 고궁원 또는 구활원이라 부른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궁원리의 일부는 장척리와 합하여 장원리가 되고, 일부는 운곡리와 합하여 운궁리가 되었다.

춘향전에 이몽룡이 전라도 어사로 제수 받아 남원으로 내려가는 대목이 나온다. 그 대목에는 공주 지역의 역원도 나오는데 그 행로 중에 화란, 모란(몰원) 등이 보인다. 화란은 활원을, 모란은 모로원을 말한다.

4) 院터(院塋)

전에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원집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부른다.(반포면 마암리, 정안면 상룡리, 우성면 방흥리)

5) 원동(院洞)

신평면 동원리 북쪽에 있는 큰 마을. 전에 신평현이 있었으며,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던 고관원(古館院)이 있었다고 한다. 원골이라 부른다.

6) 원골(院-)

계룡면 기산리 다래울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던 원집이 있었다.

7) 원앞들

신관동 관골에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금강원(錦江院)이 있었다. 그 앞으로 넓은 들이 있었는데 원앞들이라

했다. 지금은 모두 시가지로 변해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8) 보통골

보통골은 보통원(普通院)이 있었던 터로 지금의 옥룡동 도로변, 신진가든 자리로 추정하고 있다.

3. 마방과 땅이름

마방(馬房)은 지난날 마구간을 갖추고 있던 주막집을 말한다. 먼 여행길에 사람과 말이 함께 쉬어가던 주막집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마방집이 망하려면 당나귀만 들어온다.'라는 속담까지 생기기도 하였다. 이는 마방집이 망할려고 하면, 죽을 먹는 말은 들어올 생각을 않고 날것만 먹는 당나귀만 들어온다는 뜻으로, 잇속 있는 사람은 오지 않고 반갑지 않은 사람만 찾아온다는 말이다. 즉 사업과는 관계 없는 잡것만 끼어들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방집이 있었던 마을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시장이 서는 큰 마을로 추정된다. 공주에도 마방이 여러 곳에 있었을 것이나, 땅이름으로 전해지는 곳은 계룡면 소재지인 월암리 하나뿐이다. 농협 뒤흘에는 경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옛길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이곳은 5일장이 서던 곳으로, 상점 점포로 보이는 오래된 집들이 길을 따

계룡면 월암리의 마방교와 시장터



라 늘어서 있다.

계을가에는 마방교(馬房橋)라는 다리가 있다. 마방교라는 다리를 통하여

이곳에 사람들로 붐비던 마방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마당리산

마당리산은 달산리와 경계에 있는 이인초등학교 서편 산을 일컫는다. 옛날에 이인역에서 부리던 말을 먹이던 곳이라 하여 마당리산이라 부른다.

공주 관내의 원(院)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 관내의 원(院)

원 명	위 치	군지의 기록	비 고
금강원(錦江院)	·	금강북안	신관동 관공
희환원(喜歡院)	주남30리	·	·
요광원(要光院)	주남35리	·	·
모로원(毛老院)	주북26리	외당면 요룡리	모란
궁원(弓院)	주북40리	정안면 장원리	활원
인제원(仁濟院)	주북50리	정안면 인풍리	·
웅진원(熊津院)	·	웅진안	·
공서원(公西院)	주서31리	우성면 용봉리	현지 주민은 공수원이라 칭함
반야원(般若院)	주서49리	탄천면 분강리	·
고관원(古館院)	주서67리	·	신평면 동원리(한국지명총람, 1974. 59p)
공제원(公濟院)	주북28리	·	·
내창원(內倉院)	주서25리	·	우성면 방흥리(우리고장 충남, 1988. 314p)
효가리원(孝家里院)	주동10리	계룡면 신기리 효포촌	·
보통원(普通院)	군동3리	옥룡동 노변	옛 迎喜亭터, 보통골(신진가든 예식장)

출처 : 공주군지(1957년), '·' 표는 군지 기록 및 관련자료 없음 표시

※ 한참 길리다 : 두 역 사이의 거리는 보통 30리였으며, 두 역 사이를 오가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던 데서 '한참' (한 역을 가는 시간)이라는 말이 나왔음. 즉, 한참은 30리를 걸어가는 동안이란 뜻으로 오랫동안이란 뜻임.

멀리서도 성스럽게 보이는 곳 - 공주 중동성당 -



나 태 주

시인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충남 시인협회 회장

나는 개신교 신자이다. 개신교 신자들은 비교적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른 종교에 관한 서책이나 경전을 멀리하고 다른 종교와 관계된 사람과 만나는 일조차 꺼리곤 한다. 허나 내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아니하다. 개신교 신자로 신앙을 지키는 일과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일이나 다른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문제는 다른 종교를 종교로 인정해주느냐 아니냐 그 마음 바탕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로서 확고한 자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전제가 될 것이다.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자기 신앙은 신앙대로 견고히 지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이 쓰여짐을 글머리에 밝혀서 적는 것은 혹시 나중에 이 글이 종교적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나의 소심과 염려 때문이겠다.

공주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을 찾는다면 영명고등학교 소유이면서 한때 공주사범학교 여학생 기숙사로 쓰여졌던 중학동 산언덕에 위치한 붉은색 벽돌 3층 건물과 공주시 중동, 구 박물관 건너편에 있는 공주 중동성당 건물일 것이다. 앞의 건물이 세워진 것은 1905년이고 개신교의 한 종파인 미국의 감리교와 관계있고, 건물 나이로 치면 100살 정도가 된다. 그리고 뒤의 건물 건립 연도는 1934년으로 구교인 가톨릭과 관계가 있고 건물 나이는 70살쯤 된다. 두 건물 모두 원형 보존이 양호한 편이나 보다 잘 다듬어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중동성당 쪽이다. 특히 중동성당은 오늘날까지 신자들의 예배

장소로 활동되고 있으면서 건물이 가진 특성이나 아름다움이 십분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말하자면 중동성당은 살아서 숨쉬는 건물이라는 이야기다. 중동성당은 공주 시내 한복판 조그만 동산위에 서 있다. 세워진 지대도 높거니와 건물의 키까지도 높아서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점은 카톨릭 계통 건물의 일반적 특징으로 보인다. 가까이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소재 나바위성당도 그러하고 외국의 예로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성심성당(사크레쾨르 대사원)도 몽마르트 비탈진 언덕 위에 높직이 앉아있는 건물이었다.

그래서 중동성당 건물은 우리 공주 사람으로서 아주 낯익은 건물 가운데 하나다. 시내 중심가 어디서든 눈을 들어 멀리 보았을 때 중동성당 건물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중동성당 건물은 공주 사람들에게 될수록 하늘과 가까워지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다. 정말로 중동성당 건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가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보다 맑은 마음, 바른 마음, 고운 마음을 가질 것만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한다. 아, 저기 언덕 위에 저렇게 흰칠하고 높은 건물이 우리 공주에도 있었구나. 저기에 가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성스러운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발은 비록 땅을 딛고 눈과 귀는 소란스런 시정의 어지러움에 젖어 있지만 마음만은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중동성당 건물은 그가 모자를 쓴 사람이라면 잠시 모자를 벗고 눈을 감은 채 무엇인가 머나먼 것들을 그려보라고 말해줄 것만 같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많은 여유와 위안을 준다. 하므로 중동성당 건물은 공주 사람들에게 자존심의 한 대상이겠다. 공주의 한 상징이기도 하겠다. 하마터면 썰렁했을 그 공간에 중동성당의 뾰족한 종탑이 세워져있고, 그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겠는가. 중동성당 건물이야말로 종교를 넘어서 공주를 역사의 도시라고 고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 기댈 조그만 언덕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중동성당을 찾아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 남쪽과 북쪽의 길이 그것인데 남쪽 길은 시멘트 계단으로 되어있어 걸어서만 가능하고, 북쪽 길은 포장도로로 되어있어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다. 이번에 중동성당을 찾을 때는 북쪽 길을 이용했다. 알고 보니 그 쪽이 성당의 정문으로 출입구 양쪽에 커다란 기둥이 서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에 성당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역시 남쪽의 계단으로 된 길처럼 가파른 길이였다. 가는 길은 우거진 나무로 덮여있었는데 성당이 가까워질수록 나무 그늘 사이로 터진 하늘이 크게 다가서고 성당 건물이 점점 가깝게 보이는 것이 어느 먼 나라에라도 온 듯 새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다. 성당 안은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용했다. 마당에는 드문드문 화강암 재질의 징검다리가 있었

고 쓰레기 하나 낙엽 한 장 눈에 띄지 않았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우거져 있었고 나무들에 둘러싸인 성당 건물은 그렇게 오랫동안 단정한 자세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양의 중세 고딕식 건축양식으로 평면은 라틴식 십자가형이고 내부는 삼랑식(三廊式)으로 되어있고 가파른 언덕위에 높은 종탑을 세워 종교 건물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통적 목조건물에서 현대식 건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건축물 내부에서 살필 수 있다’고 성당 트랙 한 구석에 서있는 표지판은 설명해주고 있었다. 성당 건물은 또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기념물 142호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아름다운 그림들을 찾아 사진에 담았다. 성당 건물 보다는 성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소한 사물들의 어울림이 좋게 보였다. 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가운데 한 나무가 특별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나무는 느티나무로 커다란 몸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통 중간 움푹 파여진 부분에 조그만 가지들이 오보록히 돋아나 있고 또 거기에 나뭇잎들이 자라나 있었다. 보통 다른 장소에 이런 나무와 작은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어우러져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도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차라리 이걸 보존 보다는 방임의 일이다. 관심보다는 무관심의 일이다. 방임과 무관심이 때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낳는 어머니일 수도 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도 있다. 또 그 느티나무 밑둥 부분 땅바닥에는 두 개의 둥그스름하게 다듬어진 돌이 놓여 있고 그 두 개의 돌 사이에는 자갈돌들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결고리들이 꼭 한 장의 예쁜 그림엽서를 연상시켰다. 이런 아주 작은 경우에서만 보아도 이 성당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누군가의 안목과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일이겠다.

상쾌한 마음으로 휘, 성당 안 트랙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역시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 뿐더러 어디에서도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 그래도 외롭다거나 적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만 대리석 몸을 입고 있는 마리아 상을 여러 차례 사진기에 담고 뒤로했다.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다. 끝내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참 좋은 무엇, 귀한 그 무엇이 잠시 나에게 들렀다가 가는 짧은 시간의 기쁨이었다.



공주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찾아서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자 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공주전우회를 소개합니다.

전국 농업후계자 부인과 여성 후계자의 자주적인 협동체 한국여성농업인 공주시연합회



송영월 회장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소개드릴 봉사단체는 한국 여성농업인 공주시연합회입니다

한국 여성농업인은 이름 그대로 전국 농업후계자 부인과 여성후계자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제반 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2008년 현재 송영월 회장님을 중심으로 6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본회는 단합하여 큰 보람을 얻기도 합니다.

2007년도에는 각 읍 면에 홀로 사시는 노인 100여명을 모시고, 목욕봉사와 식사대접을 해드리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가을철 김장사업으로 또한 봉사했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큰 이슈로 거론되는 한미 FTA협정 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우리의 농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리더를 양성한다.



한미FTA 협정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농촌 문제를 다같이 고민한다.



공주대 교명 변경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동참한다.



김장을 담가서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함이 있다.



어르신을 찾아 목욕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효심을 실천한다.



알뜰살뜰 살림하여 물품을 준비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

또한 중점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주체성 의식을 확립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여성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1. 독거노인 목욕봉사
2. 농어촌 자녀 해외연수
3. 여성 농업인 수련회 및 교육
4. 여성 농업인 도 대회
5. 불우이웃 돕기 봉사

위의 사항을 추진하여 활동한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 특히 여성농업인 공주지회에서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주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모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글 · 사진 | 김춘원 기자



단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해진다.(사진은 이사회 모습)



체력은 국력! 체육대회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향토자료|

삼충기적비문(三忠紀績碑文)

위치: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 송풍



충성과 효도는 인도(人道)의 근본이요 임금과 부모는 천륜(天倫)의 우두머리니 신하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는데 목숨을 바치지 아니하면 아니되며 아들이 효도로 부모를 섬기되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라 무릇 순하게 항상 처한즉 충성과 효도는 진실로 도리상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니 만약 거슬러 변을 당한즉 충고 효는 가장 높아서 능하기 어려운 것이라.

아! 공주시 봉명리에 대대로 살아온 강릉유씨(江陵劉氏) 문중에 백중숙(伯仲叔) 삼형제 충신이 있었으니 맏은 대남(大南)이니 자(字)는 형일(亨一)로 무과에 합격했고 둘째는 일남(日南)으로 자(字)가 세인(世仁)인데 또한 무과에 합격했으며 셋째는 기남(起南)으로 자(字)가 순경(順卿)인데 무과에 합격해서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를 역임했으니 세분에 충의(忠義)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제해와 용맹이 뛰어났더라. 때때로 선조 문희공(文僖公)이 자손들에게 나라를 도와 충성을 다하라는 훈계를 읽고 말하기를 우리집이 대대로 녹받은 것이 이미 평상이 넘는 은전을 입었고 임금을 섬기는 절차는 비록 끓는 물과 뜨거운 불을 당하더라도 단정코 회피하지 아니해야만 신하의 직분이라 할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자손이라 할 것이다 하더니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남에 분연히 몸을 떨치면서 말하기를 이때가 바로 나라에 티끌 만치라도 보답할 때라 하고 이에 세분이 의병(義兵)을 거느리고 금천(衿川)으로 달려갈세 형과 동생이 힘을 합쳐 무찌르니 적군을 죽인 것이 심히 많더라. 백씨와 중씨 두분이 먼저 죽음을 당했으니 셋째분이 홀로 칼을 들고 반드시 사사로 원수를 갚고 국가를 위해서 죽고자했으나 마침 그 머리를 적군의 칼날에 잃었으니 붉은 피가 땅에 그득하더라. 때는 인조14년 12월 27일이라.

아! 슬프다 셋째분이 타고다니던 말이 입으로 그 주인의 머리를 물고



충마충 셋째 일남의 말의 무덤



강릉유씨 삼형제 비석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 소재



강릉유씨 삼형제 분묘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 소재

다시 고향을 찾아 오는 길에 쓸쓸이 슬피 울며 온 것이라. 이 판현 임좌(板峴 壬坐) 언덕에 장사 지냈으니 선산에 간 것이라. 말도 따라서 죽으니 드디어 주인묘 계하에 묻은 것이라. 슬프다. 하늘이 길고 땅이 오래되어도 충신의 한(恨)은 다하지 아니하고 바다가 마르니 산이 무너져도 열사(烈士)의 눈물을 다하지 않는지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 죽는 것이 각각 달라서 성명을 잘 보전해 장수로 천명을 다하도록 살다가 죽기도 하고 혹 물과 불로서 횡사하기도 하는지라 실지로 전쟁 마당에서 칼날이 마주쳐 보검(寶劍)이 부러지고 양군(兩軍) 간격을 좁힘에 생사(生死)가 결정되는 것이라 위태하기 터럭하나 태우는 것 같아 목숨이 경각에 있는지라 항복을 하면 이름이 욕되고 싸우면 백골이 모래밭에 뒹구니 누군들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군들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리오마는 삼형제가 다 같이 적진에서 죽어 몸은 죽어도 이름은 남기에 조삼에 가르침을 더럽히지 아니했으니 그 원래 쌓은 바를 속일 수 없도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죽고 말은 주인을 위해 죽었으니 사람이 충성을 함에 말도 충성을 했으니 말이 사람에게서 배워서 그런가 옛날에도 드문 일이며 지금도 드문 일이라. 삼형제의 죽음이 참되게 죽어 의리를 얻었으니 이것은 이른바 살아서 욕된 것이 죽어서 영화로운 것만

같지 못한 것이라 이런고로 군자는 의리로서 죽음에 죽는 것을 돌아가는 것 같이하고 오직 의리있는 곳에 비록 죽더라도 원통해 하지 않는 것이라 공의 시조는 송(宋)나라 병부상서 죽간선생(兵部尙書 竹諫先生)은 곧 충성스럽고 어짐으로 소인배에 참소를 당해 같은 조정에 팔학사(八學士)와 바다를 건너와서 고려에 살면서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유학(儒學)을 밝히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고 만년에 나라에서 부름에 나아가 잘 다스리도록 돕고 인도했으니 곧 고려 문종(文宗)때라 죽음에 시호를 문양공(文襄公)이라 했고 자손들이 진진하게 많아서 대대로 벼슬이 이어졌다. 11대를 전하여 조선조에 들어와서 개국공신 옥천부원군 호 선암 증영의정 문희공(開國功臣 玉川府院君 號 仙庵 贈領議政 文僖公)이 있으니 이 분이 이조판서(吏曹判書)를 맡았으니 선조들을 잘 계술해서 이름이 현달했고 이 분이 병사 신주(兵使 信周)를 맡았으니 진치는데 위엄이 있어 군인의 업적을 날렸고 3대를 내려와서 직장의 휘가 세영(世英)이니 이 분이 3충신의 고조부고 주부의 휘는 현남(賢男)이며 생원의 휘는 계원(繼遠), 진사의 휘는 자호(自浩)니 이분들이 증조부 조부 부친이라. 어머니 고성씨(固城李氏)가 6남을 낳았으니 백씨와 중씨와 숙씨는 곧 삼충신이라. 그 다음은 사남(仕南), 의남(義南), 태남(泰南)이다. 맏분의 배위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운룡(雲龍)인데 목사(牧使)로서 광산김씨(光山金氏)한테 장가를 갔고, 둘째분은 배위가 고성씨(固城李氏)로 3자를 낳았으니 장자는 성립(成立)이며 다음은 득태(得泰)니 동지중추(同知中樞)로 광산김씨(光山金氏)에 장가들었고, 다음은 득인(得仁)이며 셋째분의 배위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득중(得中)이니 군자감정(軍資監正)으로 순흥안씨(順興安氏)에 장가들었다. 손자, 증손자 이하는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아! 유씨(劉氏)의 가풍(家風)은 스스로 전통이 있어서 우뚝하게 높은 행실이 계속 이어져 나옴에 삼충신에 선대가 문무(文武)가 빛나고 빛난 것은 오히려 논할 필요가 없도다. 삼충신의 절의는 선조에 유혼이 있어서 선조에 더럽힘이 없었으니 진실로 예천(醴泉)이 근원이 있고 영지(靈芝)가 뿌리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경험하였도다. 지난 순조 계유(純祖 癸酉) 년간에 도내 선비들이 누차 영수(營繡)에 글을 올려서 아뢰에 이미 표창하는 제사(題辭)는 있었으나 조정에서 정려(旌閭)를 허락받지 못

했다. 그 후 세집 자손들이 다 죽고 백씨와 중씨 두 분을 셋째분 묘 오른
 쪽에 제단(祭壇)을 만들어 놓았다. 지금 만분의 11대 사손(嗣孫) 의중(義
 鍾)과 둘째분의 10대 사손(嗣孫) 재갑(載甲)과 셋째분 11대 사손(嗣孫) 갑
 중(甲鍾)이 그 일가 경열(慶烈), 성열(性烈)과 같이 모든 일가들과 상의하
 기를 우리 삼충신(三忠臣)이 선열(先烈)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와 같이 우
 뚝하고 또 짐승에게 까지 감동을 시키니 이 같이 한(恨)스러운 것은 자손
 들이 쇠약해서 적적하게 들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민몰(泯沒)했으니 어찌
 그 당시 광명한 시대에 불찰과 역대로 잔미한 자손들에 원통함이 아닐까.
 지금 그만둔 즉 조그만한 돌에 새기는 것을 누가 후세에 전하리오. 어찌
 적은 일이냐. 동서로 길거(拮据)를 해서 여러해 경영하다가 돌을 다듬어
 옛마을 길 옆에 비석을 세우니 곧 묘소 아래 산기슭이라. 나에게 기록을
 청하거늘 사양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어서 그 당시 결제한 문자와
 집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살펴보고 공경히 두어말 지어서 후인들에게 고
 하노라.

『강릉유씨 종보』에서 발췌하였음



삼형제 중 첫째 대남 묘



삼형제 중 셋째 일남 묘

공주시 웅진동



지명에 얽힌 사연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

- 마을의 지리적 환경
- 마을과 지명 유래
- 역사 기록 속의 한산소 · 박산소
- 한산소와 박산소의 문화유적
- 한산소 · 박산소 마을의 민속

역사 기록 속의 한산소 · 박산소

○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유래

한산소와 박산소가 처음 문헌기록상에서 지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편찬된 『여지도서』가 아닌가 한다. 즉 영조대인 1759년 어간에 편찬된 관찬지리서인 『여지도서』공주목 면리조에 한산소리와 박산소리의 지명과 호구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한산소리는 서남 5리에 있으며, 호수는 14호인 인구는 총 39명이고, 이 중 남자는 21명, 여자는 18

명이고, 박산소리는 서쪽 5리에 있으며, 호수는 47호, 인구는 총 158명인데 이 중 남자가 97명, 여자가 61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한산소와 박산소호리는 남부면(南部面)에 소속되어 있는데 참고로 주변 마을들과 비교하여 호구수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보아 한산소리와 박산소리는 주변의 마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30여년 뒤인 정조 때의 인구센서스 자료인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도 한산소와 박산소의 기록이 보이는데

〈표〉『충청도읍지(忠淸都邑誌)』 방리조의 한산소 · 박산소 주변마을 호구 수

마을명	위치	호수(호)	인구(명)	남(명)	여(명)
고상아리	부내	179	521	342	179
반죽리	부내	165	475	310	165
봉황산리	부내	99	288	195	93
허물리	부내	79	227	148	79
교촌리	부내	93	236	143	93
주미리	남10리	59	206	147	59
아리포리	남10리	27	74	47	27
한산소리	서남5리	26	92	53	39
박산소리	서 5리	14	39	21	18
송산소리	서 3리	47	158	97	61
용진리	서 5리	19	67	47	20
옥거리	부내	25	82	49	33

한산소와 박산소 주변 유적 분포도



공주목 남부면에 ‘한산소리, 박산소리, 아현리, 원동리, 용당리, 반산리, 오야동리, 화산교리, 월전리, 학동리, 화와동리, 상와동리, 피촌리, 봉정리, 송산소리, 조령리, 주미리, 반선동, 고상아리, 반죽리, 봉황산리, 허문리, 교촌리, 금리, 수정동’이 속해 있었다. 앞의 여지도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은 ‘용진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부면의 총 호수는 812호, 인구수는 2,224명(남 1,239명 여 985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정조대 (1776~1800)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청도읍지(忠淸都邑地)』의 방리(方里)조에서 나타나는 남부면의 기록을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박산소리의 호수 및 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변의 마을의 규모가 소폭으로 상승하고 한산소의 인구와 호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산소와 박산소의 문화유적

○ 한산성

한산성은 웅진동 한산소에 자리한 해발 121m의 나지막한 야산 정상부에 약 105m의 크기로 축성되어 있다. 성은 자연지세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축성하였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 내지는 타원형에 가깝다. 성에 오르면 동쪽과 남쪽은 주변



한산성 전경

의 산봉우리에 가려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하나, 북쪽과 서쪽으로는 금강과 곰나루, 웅진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따라서 한산성은 역시 금강과 그 주변을 감시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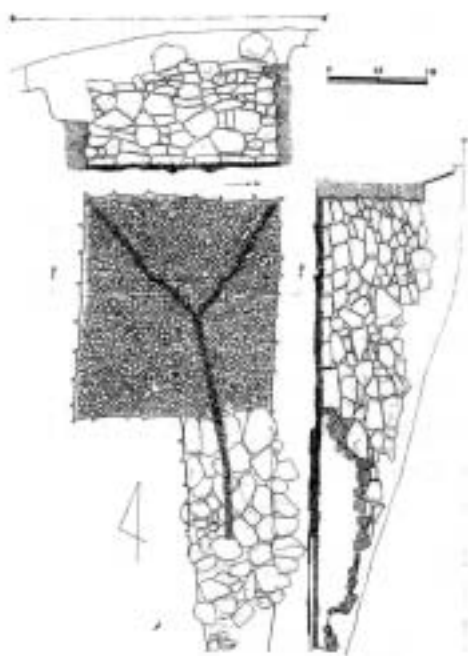
성벽은 보존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남벽과 북벽에 약간의 성벽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성벽은 토축으로 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미 붕괴된 상태로 외벽의 높이는 2m, 내벽은 50cm 정도의 높이만 남아 있고, 성벽 상부의 폭은 2~3,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편, 남벽과 북벽의 토축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서쪽의 성벽, 즉 금강을 접한 부분에서는 석축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성내에는 별다른 시설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산성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성내에 큰 시설물은 없었던 듯하다.

○ 웅진동 고분군

박산소 마을 남 북쪽 구릉지대에서 각각 2곳씩 총 4곳의 고분군이 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백제시대 석실분과 옹관묘, 그리고 이후 고려, 조선시대의 고분이 있었던 곳이다. 더불어 이 고분군 지역은 1979년 조폐공사의 공장부지로 결정되어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분군이 발굴조사되었다.

△ 웅진동 고분군 ① : 이 고분의 발굴조사는 1979년 당시 공주사범대학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석실분 14기와 석곽분 4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토광묘 등 총 29기가 조사되었다. 백제시대의 것은 한 걸 같이 구릉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고려와 조선시대의 분묘는 구릉의 능선 상에 위치

웅진동 고분군 전경(1978년 조사 당시)



웅진동 고분군 ① 27호분 실측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주류를 이루는 백제고분은 웅관묘 3기를 제외하고는 천정은 활처럼 등글게 모아져 있는 형태의 석실묘이다. 석실묘 형식은 거의 동일한 구조 양식으로 현실은 거의 방형에 가깝고 연도는 14기 모두 동쪽 벽에 나 있으며, 대부분 완전한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금동제 귀고리, 은제팔찌, 수정장신구, 토기 등이 있다.

이 고분들 규모나 출토유물로 미루어 피장자들의 신분이 귀족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의 기형과 문양 등으로 보아 축조연대는 6세기 중엽 이전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형태 축조방식이 같으므로 단일기간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 웅진동 고분군 ③ 13호 옹관묘

▽ 웅진동 고분군 ③ 2호 횡혈식석실분



△ 웅진동 고분군 ② : 이 고분군은 1988년에 조사된 것으로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에서 약 200m의 지점에 있다. 총 4기의 백제시대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고분군이 자리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는 시립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관 고리와 관 못 외에 특별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묘실의 바닥을 기와로 깔았던 특이한 고분도 있다.

△ 웅진동 고분군 ③ : 이 고분군에 대해서는 1996년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지원에 의한 조사와 2004~2005년 웅진동 주택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먼저 1996년에 확인된 고분은 총 13기로 1기의 웅관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축분이다. 이 중 8개의 석실분과 웅관묘는 출토된 토기편과 구조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시대 고분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고분은 모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고분군은 백제의 남천 후에 유입된 횡혈식 석실분이 사용되면서 함께 조영되었다는 점, 재천도 후 평천장으로 진행된 유형이 여기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자료로 중요하다. 또한 고려시대의 석곽묘, 조선시대의 석곽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고려

이후 분묘자료의 범위를 확대시켜준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2004~2005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는 백제시대 석실분과 횡혈묘, 주거지가 각각 3기씩 조사되었다. 나머지 토광묘 29기는 조선시대의 것이다. 도굴 등으로 인하여 원형을 많이 잃었고, 출토된 유물도 빈약하다. 한편 고분군과 중복된 부분 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된 주거지의 경우, 일반적인 거주용 주거라기보다는 고분과 연관된 상장례 관련 시설물일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 박산소 고분군 : 공주시 웅진동의 박산소에서는 서북향으로 전개된 구릉의 동남면에 위치한 고분이다. 고분의 형태는 현실의 평면 상태로 보아, 천정이 활처럼 둥글게 모아져 있는 형태로 여겨진다. 대체로 연도와 배수구를 갖추고 있는 백제 석실분 유형이다. 특이한 것은 바닥에 무늬가 없는 벽돌을 깔고 있고, 현실 내의 관대까지 벽돌로 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외에 바닥은 벽돌에 홈을 파서 배수로로 설치하고 있는데, 다만 벽돌을 사용한 수법이 인근 송산리 백제전축분에 사용한 방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공 주 의 인 물



충정공 비각

學問과 德을 갖춘 愛國志士

醒菴 이철영 李喆榮 선생

(1867~1919)

이철영 선생의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字)는 계형(季衡)이요 호(號)는 성암(醒菴)으로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선생의 9대손으로 고종 4년(1867년) 음력 4월 17일에 공주시 계룡면 상왕리 중호(公州市 鷄龍面 上旺里 中湖 - 현재 공주시 상왕동) 마을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골격이 남달리 크고 얼굴이 빼어나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까지 다음 커서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였다. 선생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부여(扶餘) 당리(唐里)에 살고 있던 자겸와(自峽窩) 유대원(柳大源)의 문하(門下)에 나아가 학문에 뜻을 세웠다.

선생은 7,8세에 벌써 어른과 같은 체격을 지니었으며 한학(漢學)을 열심히 익혀 학덕(學德)을 겸비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특히 율곡(栗谷)의 학통을 존중하였고, 선조(先祖)인 초려 선생을 양모(仰慕)하였다.

선생은 학문을 위해 부여 당리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살았으며 유대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후에 스승이요 장인인 자겸와 유대원이 돌아가시자 그 서당과 학생들을 도맡아 강학(講學)을 계속하였다.

당시는 19세기 후반으로 동학농민혁명, 청

일전쟁, 갑오개혁 등 격동의 시대로 나라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다. 선생은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초려의 전통적인 학문에다 척화론(斥和論), 양물금단론(洋物禁斷論)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화이론(華夷論)의 주장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선생은 정부와 난(亂)을 일으킨 백성을 함께 비판하며 시세(時勢)를 개탄하면서도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1909년 융희 3년(隆熙 3年)에 을사조약 체결 등 어려운 상황을 느낀 선생은 의병거사를 계획하여 '기의려문(起義旅文)'을 지었으며 호적개편 반대 등 항일(抗日)투쟁에 앞장섰다.

선생은 일본의 갖은 설득과 고문(拷問)에도 굴하지 않고 「병자년(1876년)에 조약을 체결함은 한·일(韓·日) 피차간에 서로 화친하여 영구히 보안(保安)하기를 기약한 것 이어늘 일본이 갑신년(1884년)에 우리 성상(聖上-왕)을 위협하고 재상(宰相)을 살해하며 갑오년(1894년)에는 우리 궁궐을 노략하고 전장(典章)을 폐기하며 을미년(1895년)에는 우리 국모(閔妃)를 살해하고 을사년(1905년)에는 다섯 가지 조약을 구성함은 만고 없는 변고」라고 통렬히 비난하는 '치일

성암 이철영 성암집



국정부서(致日國政府書)’를 일본 정부에 전하도록 부여 주재소(駐在所)에 보냈다. 이로 인하여 선생은 홍산경찰서(鴻山警察署)에 붙들려 가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항거하며 끝내 굴하지 않자 왜경(倭警)은 마침내 큰칼을 빼어 찌르려고 하였다. 이 때 선생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라를 지키는 내 정신은 만고에 걸친 큰 의리요, 내가 믿는 것은 한 조각 칼날뿐이다. 내 몸은 죽을지언정 내 의리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니 왜경도 선생의 의지에 감탄한 나머지 슬며시 칼을 감추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일본의 탄압은 더욱 더 거세어져 갔으며 ‘한국인 호적 개편’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가 선생을 일본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같은 수단을 다 썼다. 그러나 죽어서 한국 귀신이 될지언정 살아서 일본 백성은 될 수 없다는 선생의 의지는 더욱 굳어져 갔다. 선생은 석방된 후 곧 ‘재치일국정부서(再致日國政府書)’를 또다시 보냈다.

「역순(逆順)의 이치로 역천(逆天)하면 망하고 순천(順天)하면 흥(興)하는 법이다. 우리가 비록 시운에 구애받고 기수(氣數)에 궁박하여 어찌 할 수 없지만 일신만은 호적에 편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나의 자정(自靖)하는 일단(一端)이라 비록 이로 인하여 뼈가 가루가 되고 살을 찢어 헤친다 하여도 본심은 변할 수 없다.」

이처럼 선생이 강한 의지로 호적 편입을 반대하고 일본 정부에 거세게 항거함으로

왜경은 갑인년(1914년)에 선생을 체포하여 부여 경찰서에 구금하였다가 그해 11월 출옥시켰다. 이 때 당한 고초는 선생의 「부풍옥중일기(扶風獄中日記)」에 기록되어 전하여지고 있다.

선생은 학문적 열정과 부녀자 교육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여 한학자(漢學者)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녀자 교육을 위하여 1911년 「내범요람(內範要覽)」을 한글로 저술하였다. 이와 같이 선생은 항일구국의 유학자이자 지조 있는 교육자이기도 했다. 특히 「내범요람」중에서 시대를 풍자하는 가사(歌辭)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나라는 망하여도 도(道)는 없어질 수 없다는 당시 유학자의 정신이 짙게 배어있다.

선생은 또한 성리학(性理學)에도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1917년 간재 전우(艮齋 田愚) 선생과 성리설(性理說)을 토론하였으며 간재와의 왕복 서한을 통한 명덕(明德)에 대한 토론과 52세 때인 1918년 저술한 「사상강설(泗上講說)」에 나타났듯이 선생의 성리학설은 “율곡의 학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세대의 대립된 이론을 통합하려는 종합성의 추구”에 특징이 있다.

선생은 1919년 3.1운동을 체험한 후 항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계속되어온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지병인 천식마저 재발되어 그해 53세로 세상을 떠났다.

공주시 상왕동에 선생의 묘소와 사당 숭의사(崇義祠)가 있어 매년 음력 3월 17일에 사림(士林)에서 제향을 올리며, 이 때에는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새롭게 2008년을 비추는 아침 해
금강둔치에서 신용희 기자 찍음

시, 시민배려 사무실 배치 ‘호평’ 시정질문 및 2008년 예산안 등 처리



민원해결 차 시민 발길이 잦은 부서와 문화 예술인이 즐겨 찾는 일부 부서를 시내 중심에 전진 배치했다.

공주시가 민선 4기 역점시책에 맞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전개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1월 14일 역대 이후 최대 폭의 인사발령과 함께 새로운 부서를 대거 신설하는 과정 속에서도 민원해결 차 시민 발길이 잦은 부서와 문화 예술인이 즐겨 찾는 일부 부서를 시내 중심에 전진 배치했다.

기존 본관 후면에 있던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교통정책과와 농업정책의 입안, 유통, 지원 등을 담당하는 마케팅과를 옛 중학동사무소(구, 공주박물관 옆) 자리에 배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토록 배려했다.

또 문화, 축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화축제팀을 교동에 위치한 옛 군청자리에 배치해 이용편리와 함께 기동성을 갖췄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는 각종 편의시설 완비로 비교적 이용에 무리가 없는 시 본청 별관에 그대로 존치시켰다.

2008년은 관수시비(灌水施肥)의 해

이준원 시장, 내년도 역점시책 밝혀



2008 공주시정은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 건설을 위해 지난해의 경전파종(耕田播種)의 시정기초를 토대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관수시비(灌水施肥)의 해로 삼기로 했다.

이준원 시장이 밝힌 중점사업으로, 5도 2촌 주말도시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이 주말이틀을 공주에서 보내도록 12개 시범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농촌 폐교 부지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며 신악레포츠·골프장 유치와 함께 100만명의 회원유치를 위한 인터넷 '사이버시티'를 구축기로 했다.

둘째,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2010년 대백제전과 2011년 도민제전 유치에 대비,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 공예공방촌 및 고마나루 숙박촌을 건립하고 구 도심권에 역사적 특성·문화적 매력이 깃든 디자인 예술고를 가꾸기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환경 조성사업 전개차원에서 금학수원지에 생태공원 조성과 유구천 및 정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정안천 고수부지에 테마항공파크를 유치하며 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 확충 및 검상동 매립장을 증설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과 산업경제의 확충을 위해 북부간선도로·한빛아파트~중앙로 연결도로·금호고속~대학로 도로를 개설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 추진과 유구직물산업의 부활지원,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의 적극 추진, 그리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복지수혜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순회 주민지원서비스 확대와 공주의료원 및 소방서의 이전지원, 100억원 규모의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기금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자금, 쌀 소득 등 직불제, 환경비료 공급 등 농업지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농업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개선,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 5건 모두 원안가결 쓰레기 종합대책과 대민홍보 강화 주문



공주시의회는 12월 1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의회에 상정된 5건 모두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태)는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했다.

전기공급 희망수용가에 소요공사비를 용자 지원해 온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가 지난 2006년도를 끝으로 용자금 상황이 완료되면서 관련 조례가 폐지되게 됐다.

또한 의당면 오인리에 4억 7,000여만 원을 투입, 부지면적 791㎡에 건축면적 467㎡ 규모의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판매센터를 신축, (사)한국밤재배자협회공주시지회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의무 사업장 면적(약 309개 업체 해당)을 조례로 규정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상수도 요금의 누진을 완화를 골자로 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로운 주소체계를 부여하는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다만, 이날 시의원들은 쓰레기처리에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주소체계를 부여하는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30%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비 추가확보 노력과 아울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준모,” ‘구도심활성화조례’ 제정하라”

구도심공동화대책 강도 높게 제기



제109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이틀째 시정질문에서 양준모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5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속된 시정질문에서 양 의원은 강남지역의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市の 균형발전차원에서 ‘구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지역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市가 역점추진 중인 반포신도시, 탄천공단조성, 대백제전부지, 골프장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및 개발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병목현상이 심각한 공주세무서-공주시청간 도로확장 계획과 도시경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도심지 빈집철거사업 추진계획과 인근 시·군과 비교해 현저히 열악한 체육공원 증설 및 활성화방안을 물었다.

집행부는 이날 구도심 활성화 조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대전광역시·전주시 등 구도심 지원조례 등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997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비둘기아파트~시청앞~공주여고까지 도로를 확장하려했으나 충남도에서 ‘부결’ 된 바 있으며,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道의 승인과 함께 약 45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체육공원 증설 및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는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의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 그늘막, 음수대 설치와 함께 야외무대, 체력단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연차적 설치계획을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공주의료원의 이전부지 물색, 검찰청·법원의 신관 신금지구로의 청사 이전계획, 공주소방서 이전계획, 공주북중학교의 월송동 이전부지 매입 등이 속속 밝혀지면서 구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입안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새해 첫날 금강 해맞이 행사



소원성취 기원 풍선 날리기, 공주 풍물패의 대동 풍장 한미당 등이 펼쳐져 무자년 새해 첫 날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더한 기쁨을 선사했다.

무자년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오전 7시부터 공주시 금강 둔치공원에서 '2008 금강 해맞이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이준원 공주시장, 정진석 국회의원을 비롯,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식전 행사로 놀이패 풍장의 대북 공연을 비롯, 국악협회의 풍년기원 사물놀이, 젊은무대 서경오 대표의 춤사위 퍼포먼스가 전개됐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이준원 시장과 이동섭 시의장의 해오름 북 울림, 해맞이 함성, 신년사, 나태주 시인의 축시 낭송, 시루떡 봉덕, 바리톤 한중동의 축하노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2008년도 공주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2008m의 공주밤 가래떡을 완성,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나눠먹으며 덕담을 나눴다.

제18대 총선 정당·예비후보자 설명회 개최

입후보자에정자 등 위법 선거운동 예방 당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훈)는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공주시·연기군선거구)와 관련하여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을 앞두고 이번 국선에 참여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1월 28일 공주선관위 회의실에서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 ‘국감우수의원’ 선정

“국민심정 대신한 것 뿐인데..고분하다”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충남 공주·연기)이 28일 오후 2시 현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0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에서 ‘국감 우수의원(건설교통위원회)’으로 선정됐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NGO모니터단은 매년 1,00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평가위원들이 국감의 전 과정을 모니터해 우수위원을 선정해왔고, 올해로 9년째다.

이번 국감에서 정진석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어느 행정기관에서 실시해보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여론조사(한국갤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또한 수도권 편중 심화로 지역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미분양주택양산과 건설업체 연쇄 부도 사태로 지방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실정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도 실증적인 평가를 시도하는데 주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수상과 관련, “거듭된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대신해 국정감사에 임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주.연기.대전 유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교부, 11월 28일 주택정책심의회위원회서

건설교통부는 11월 28일 주택정책심의회위원회를 열어 충남 공주시, 연기군, 대전 유성구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 원내대표, 공주·연기)은 지난 9월 7일 전국 11곳의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이후 해제 요건을 갖춘 공주시, 연기군, 대전 유성구 가 빠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열린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집값하락과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는 공주·연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온당치 않다”며 공주·연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주·연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재촉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주·연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는 확답을 얻어낸 바 있다.

공주새마을 지회, 고부 사랑 큰잔치



고부간 사랑 큰잔치가 27일 오전 10시 30분 공주웨딩프라자 2층 다이아몬드실에서 개최됐다. 새마을운동공주시지회(지회장 방재천)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200여쌍의 고부(姑婦)들이 모인 가운데 화합 한미당 잔치를 열었다



공주 '효 장학회' 유공자 장학금 수여 - 12월 14일 오후 2시 공주 문예회관 소공연장 -



사단법인 '효 장학회(이사장 이화영)' 제10회 효 장학생 및 효 실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정재욱 문화원장과 최운용 전 공주시의장 등의 장학회 이시들과 수여학생,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10 회째를 맞는 장학금 수여식에는 지역유공자(계룡면 오종석, 옥룡동 김영숙, 신평면 이경자)를 포함한 초·중·고, 대학생 총 35명을 선정, 730 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다문화가정 송년축제 성황리에 열려

공주시는 12월 27일 오전 11시 공주유스호스텔에서 다문화가정 세대를 초청, 송년축제를 개최했다. 행복한 가정 가꾸기의 일환으로 마련한 다문화 가정 송년 축제에는 17개 읍·면·동에서 375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참여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공이 큰 박종광(남, 의당면)씨와 이멜리다(여, 옥룡동)씨가 이준원 공주시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 전개된 화합 한마당에서는 외국인 주부의 한국가요·가곡 부르기 경연대회와 가족과 함께 하는 레크레이션이 전개돼 흐뭇한 하루가 되었다.

교육사랑 2社1校, 농촌사랑 2社1村 맺어

계룡初-유평리-한림에코텍-자전거 21



교육사랑 2사1교, 농촌사랑 2사1촌 자매결연식이 개최됐다. 계룡초등학교(교장 김정신), 계룡면 유평리(이장 원세진), 한림에코텍(대표 김영희), 자전거 21(대표 오수보)가 11월 16일 계룡초등학교 대강당에서 2사1교, 2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결연식에는 계룡초 김정신 교장과 한림에코텍 김영희 대표, 자전거 21 오수보 대표를 비롯해 김영만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장, 박상진 계룡농협장, 이형복 주민자치국장과 마을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공주대 박상흡 교수, 국위선양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종합우승에 기여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박상흡 교수가 세계 여러나라에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왔다. 박상흡 교수는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용접직종 한국대표선수(김형준:현대중공업(주)소속) 정지도위원을 맡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선수를 지도하여 동대회에 용접직종 심사 위원으로 참석,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한 결과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나라가 종합우승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상흡 교수는 2005년 개최되었던 제38회 핀란드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35개직종에 참가하여 금메달 3개 획득할때도 용접직종 선수지도위원과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선양을 한바 있어 그 공로로 2005년 11월1일 정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포상 받은바 있다. 또한 용접분야 국내대회에서도 다년간 심사장을 맡아 용접분야 기술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재경 공주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

재경 공주향우회 ‘2007년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로얄프라자에서 열렸다. 윤석금 회장은 “올 한해는 ‘행복’ 이르는 단어를 강조해 한해를 보냈다”며 “2008년에는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되새겨 내 행동의 모든 일에 힘이 넘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공주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데 감사하다”고 전하며 “부잣집에서 가난한 양반집에 와 족보를 바꾸자고 하는 격”으로 공주대 교명변경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주대의 이름이 바뀌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욱 범대위 수석대표 또한,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향우회원들에게 교명변경의 부당성과 교명사수를 위한 활동상 등을 설명하며 향우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석금 재경 공주향우회장, 유근창 명예향우회장, 김용래 충청향우회 총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정진석 국회의원,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오병주 변호사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공주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용암2리, 수도개발처와 1사1촌 맺어 1회성 아닌 실사구시적 교류 추진



공주시 의당면 용암2리와 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의당면 용암2리 마을회관에서 11월 12일 열린 결연식에는 오형원 수도개발처장 외 임·직원 20명과 용암2리 이도형 이장을 비롯해 마을주민, 김영만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장, 면내 기관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형식적이고 1회성 행사가 아닌 실사구시적 교류를 추진하고 농특산물 적극구매, 자생적 소규모 모임 봉사활동 실시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PRIDE 공주교육!

PRIDE 공주교육! 최고 교육청

공주교육청(교육장 김종성)이 충남도내 15개 시·군 지역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종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주교육청은 지난 12월 26일 3년마다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초의 평가보고서 제출에 이어 10월 24일 현장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주교육청은 교육혁신, 공교육 내실화, 교육과정, 유아·특수·보건·평생 교육 지원, 교육 재정, 자율·특색사업 7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종합 최우수 기관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강북 도서관, 문화센터 좌석예약제 운영



공주시 강북도서관이 문화센터 좌석예약제를 운영한다.

강북도서관은 12월 14일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센터 좌석 예약제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관 주관 모든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문화센터를 찾을 때에는 사전에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강북도서관 문화센터 입구 및 디지털 자료실에서 접수 받으며 예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좌석권이 배부된다.

서산장학재단 ‘정기사업 보고회’



재단법인 서산장학회(이사장 성원중) 공주시지부(지부장 정재욱) 정기사업 보고회가 1월 17일 오전 10시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성원중 이사장과 정재욱 공주시 지부장, 정진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운영위원, 읍·면·동 지회장과 위원들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보고회와 우수회원 수상식을 거행했다.

1부 행사로 사업보고회와 표창 수여, 2부 행사에는 ‘기부문화’에 대한 성원중 이사장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공주시 지부 설립에 헌신한 정재욱 지부장과 신두철 사무국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17개 읍·면·동 우수회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정재욱 지부장은 대회사에 앞서 “꿈과 희망을 주는 새 정부의 해에 모든 회원들이 보람차고 값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회사를 통해 “서산장학회 공주시지부는 작년에 탄생과 더불어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해 많은 공주시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서산장학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원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의미 있는 해로 서산장학재단이 설립 된지 19년을 맞아 사람으로 치면 ‘성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각 지부 및 지회임원들과 회원 모든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서산장학재단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물론,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우리 사회를 보다 희망차게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장학재단은 올해 제주도와 서울을 비롯한 각 지부에 19억 8000여만 원의 장학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 공주를 비롯한 각 지부에 유명 연예인과 가수를 초청,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고 컴퓨터 무료로 드립니다”

저소득층 가정, 시설 등에 PC보내기 전개

공주시가 충청체신청과 함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중고 PC(개인용 컴퓨터) 무료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중고 PC를 충청체신청에 의뢰해 정비과정을 거쳐 희망가정에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있다. 주요 보급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과 고아원, 복지관,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군부대, 교도소, 벽지 학교 등 정보화 취약지구 등이다. 신청방법은, 개인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무소에, 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 공주시청 정보화담당(☎ 041-840-2560)에 제출하면 된다.

공주시전기공사協,
불우이웃성금 500만원 기탁
20가구에 무료 전기공사 펼쳐



공주시 전기공사협의회원(회장 정종범, 56세) 4명은 11월 28일 공주시청을 찾아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교동초 수화부학생들, 명주원 위문공연

공주교동초등학교(교장 서성길)의 ‘하나 되어 나누어요’ 수화부학생 10명은 지난 4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인 명주원에 다녀왔다.

공주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은 ‘마법의 성’의 수화 공연과 ‘어머님은혜’, ‘작은 별’ 등의 멋진 핸드벨 공연을 선보이며 장애우와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렸다.

꿈의교회, 불우이웃 성금 500만원 기탁

공주시 웅진동 소재 꿈의교회 안희묵 목사 외 신도일동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꿈의교회 박성규 재정위원장은 11일 오전 3시 공주시청을 찾아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공주시는 이날 기탁한 성금 500만원을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일반 기탁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

남양유업(주) 공주공장이 매년 전 직원의 참여 속에 불우이웃 돕기를 전개해 오고 있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남양유업 공주공장은 한규만 공장장과 이형섭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40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다달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연말에 관내 소년소녀 가장과 노인회 등에 불우이웃 돕기를 펼치고 있다.

24일 오후 2시에는 공주시청을 찾아 이준원 시장에게 소년소녀 가장 세대, 장기면과 의당면 지역 노인회, 태안 원유유출 사고현장 방제에 전달해 달라고 1,77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공주시는 이 성금을 기탁자의 뜻에 따라, 관내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600만원, 장기면과 의당면 노인회에 300만원, 태안지역 봉사활동 지원에 300만원 등 불우이웃 돕기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리더스봉사단, 양로원 찾아 온정 나눠 주는 노인종합양로원서 김장봉사 펼쳐



리더스(Leaders) 봉사단원들이 양로원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리더스(Leaders) 봉사단은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주은 노인종합양로원을 찾아 김장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명기 리더스봉사단장을 비롯한 40여명의 회원들은 입동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김장 2,000포기를 담가 드리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유구제일교회, 결식아동 지원금 210만원 기탁

유구제일교회(목사 이규일)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중식비로 지원해 달라며 210만원을 유구초등학교에 기탁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유구초등학교(교장 윤이중)는 11월 29일 유구제일교회(목사 이규일) 권혁봉 부목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지난 10월 3일부터 주일학교 바자회를 통하여 모금한 성금 21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규일 목사는 “주일학교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을 뜻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이번에 기탁하기로 했다”며,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이중 교장은 “기탁한 성금은 본교에 중식지원대상자 학생들을 위하여 쓰일 것”이라며, “이 겨울 따뜻한 김동으로 보내준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곡사, 사곡중에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법용스님)는 12일사곡중학교 교장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마곡사 재무국장 대광스님은 학생 일인당 2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 사곡중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섯 명의 학생이 마곡사 장학금을 받게 됐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배추포기 마다 넘치는 사랑과 웃음

공주시 산성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영길)와 새마을 부녀회(회장 송향순)회원 50여명은 “사랑을 나누면 행복해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배추 7백30포기(3백5십만원)상당의 김치 1백80여 통을 춘수정과 선수정, 왕능지구대 등 불우이웃 및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신풍초, 사랑의 모금운동 전개



신풍초등학교(교장 임재건)는 12일 전교 직원 및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모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모금운동은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들을 위로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실시됐다.

리더스봉사단, '효심의집' 노인 위문

정성껏 준비한 생필품 등 전달



공주시 리더스(Leaders) 봉사단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김명기 회장, 정석진 공동대표를 비롯한 리더스봉사단 회원들은 반포면에 위치한 '효심의 집'을 방문, 정성껏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노인들을 위로했다.

김종완 효심의 집 원장은 “여러분들의 위로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며 마지막 여생을 즐겁히 생활하고 계신 효심의 집을 찾아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김성순씨, 대통령 표창
17년간 소외계층의 지팡이 역할**

공주시 여성자원봉사센터 김성순 씨(48세, 공주시 옥룡동)가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5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성순 씨는 그동안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

김씨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17년여 동안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역간 화해와 협력을 실천해 왔다.

그녀는 특히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음식조리 및 배식, 김장지원, 문화공연,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 정신요양시설, 재가 중증장애인, 자폐아동 등 어려운 이웃 지원, 각종 지역사회 행사시 급수 및 중식제공, 일뜰상설 매장 운영 및 환경정화활동 참여, 수해 및 폭설피해지역 지원 등 열거가 어려울 정도로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씨는 뜻밖의 수상소식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면서 “자기희생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해 온 공주시 여성자원봉사센터 회원과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공주교도소, ‘가족만남의 집’ 개관



공주교도소(소장 손행용)는 13일 모범수용자와 가족 간의 관계회복 및 유대강화를 위해 가족만남의 집을 신축,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신축된 가족 만남의 집은 총리실 산하 복권기금위원회 지원으로 교도소 주벽 밖에 66.57㎡ 규모의 콘도형 단독주택으로 지난 7월20일 (주)성원건설과 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속행하여 10월31일 준공을 마쳤다.

집은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돼 있으며 침대, 전화, 냉장고 TV 등의 집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번 가족만남의 집 개관 후 처음으로 이용하게 된 수형자 B씨(37세)의 모친(63세)은 “오랜 세월 옥중에 있는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해 먹이지 못해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 무척 기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공주교도소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정성이 담긴 성금을 B씨의 가족에게 전달, 사랑을 나누었다.

공주교도소 손행용 소장은 “가족만남의 집은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건전한 수형생활을 유도하는 매우 유용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향후 많은 수용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년 전통 달궁소리 역담여꾼이 재현

“세모래 강변 종달새는 천장 만장 구만장 났다.
울통불통 저 남산 보아라. 우리도 죽으면 저 모양 된다.”



역담여꾼이란 조선시대 관아에서 관리하는 상여꾼을 의미하는데, 공주시는 조선시대 충청도 행정의 중심지로 양반고장을 전통으로 하는 상례가 발달하여 왔었다.

충남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가 12월 20일 우성면 농경문화전시관에서 공개 시연회를 통해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일명 달궁소리로 더 유명한 봉현리 상여소리 공개 시연회는 70여 명의 보존회원이 참여해 200년 전 역담여꾼이 부르던 상여소리를 그대로 재현했다.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는 상여소리·축문소리·성분가래소리·달궁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여소리는 메김소리와 후렴을 함께하는 짝소리, 충청도 사투리의 처량하고 긴 진소리 등 8가지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남대표로 출전,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는 이듬해인 1997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2006년에는 전통과 얼이 서린 봉현리 상여소리를 오래토록 간직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 ‘얼비’를 세워 관람객들로 하여금 비문을 읽으면서 슬프고 무거운 죽음의 상여소리 뿐만 아니라 인생무상,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상여소리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2007 우금치 예술제’ 1일 개막

‘우금치에서 자자’ 주제로 2일까지 펼쳐져



부정과 외세(外勢)에 맞서 우금치에서 쓰러져간 농민군들의 얼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우금치 예술제가 동학농민혁명의 대표 격전지인 우금치 사적지에서 개막했다.

부정과 외세(外勢)에 맞서 우금치에서 쓰러져간 농민군들의 얼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우금치 예술제가 동학농민혁명의 대표 격전지인 우금치 사적지에서 12월 1일 오후 1시 개막했다.

특히 이번 예술제는 참가자들이 직접 집을 짓고, 밥도 지어먹으면서 하루 밤을 보내는 체험코너를 마련, 100여년前 농민군들의 꿈을 온 몸으로 느끼게 했다. 이외에도 제2회 우금치 문학상 시상식,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한 토론과 함께 이틀째인 2일 오전 6시 30분 이곳 우금치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스러진 3만여 농민군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우금치 제례행사도 진행됐다.



충남교향악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겨울연가’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이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충남교향악단(상임지휘자 김종덕)의 제118회 정기연주회 ‘겨울연가’가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베버의 ‘오베론 서곡’으로 문을 연 이날 공연은 공주교육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박정원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최초의 단조 협주곡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K.466’이 연주됐다.





예인촌, 최선 무용단의 '씨름' 공연

16일 문예회관..승무예능보유자 정재만교수 특별출연

공주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예술 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이 주관하는 마흔 두 번째 정기공연이 오는 1월 16일 오후 7시 공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선 무용단의 '씨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화관무', '검무', '강강수월래', '부채춤' 등 다채로운 전통 춤사위로 어우러져 춤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연은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이며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재만 선생을 특별 초청, 한층 격조 높은 우리 춤의 진수를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문예회관, 감미로운 재즈물결 '넘실'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감동의 무대 선사



공주문예회관이 감미로운 재즈의 물결로 넘실거렸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연에서 나윤선의 열창에 매료된 청중들은 시종 박수와 환호로 공연장을 들썩이게 했다.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계속된 공연에서 나윤선은 '천사'를 비롯해 '신데렐라처럼', '초혼', '더 이상 울지 마세요(No Me Llores Mas)', '세노야' 등을 열창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무대에서는 모든 청중들이 기립, 감미로운 재즈의 선율에 온몸을 맡겨 보는 등 공주문예회관은 감동의 물결을 이루었다.



제1회 공주고 동문콘서트

콘서트를 통한 동문화합한마당 펼쳐



제1회 공주고 동문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주고등학교 동문들의 결속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시간 30분 동안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콘서트는 오시덕 공주고총동창회장, 이종길 공주고공주동창회장, 박병수 공주고 동문콘서트 추진위원장, 임재무 공주고 교장, 이문하 공주생명과학고 교장, 박공규 충남도 의원, 이선자 도의원, 양준모 시의원 등 800여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에서는 공주고의 지나온 100여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협 공주지부, 회원작품발표회 가려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회장 이극래) 회원작품발표회가 21일 오후 6시 30분 공주시 금성동 새이학가든 3층에서 열렸다.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며, 회포를 풀었다.

또한 회원들의 시, 소설, 독후감, 동화, 수필, 평론 등의 작품 및 가을 시화전, 청소년 입상 작품을 담은 '공주문학 19집'을 배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이결재 씨가 출연, 흥겨운 우리가락을 선사했다.





제6회 공주민요발표회 '국악한마당'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둔 아름다운 우리민요의 향연 제6회 공주민요발표회 '국악한마당'이 12월 7일 오후 7시30분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금강산타령, 아리랑, 태평가 등 흥겨운 충청지역 민요와 우리 민요, 춤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우리 민요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이번 공연은 공주시민의 열렬한 격려 참여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판소리전수관 판소리 발표회 인당(忍堂) 박동진

박동진판소리 전수회에서 주관하고 공주시, 문화관광부, 박동진판소리 선양회가 후원하는 인당(忍堂) 박동진 판소리 발표회가 2007년 12월 23일 오후 2시 국립공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최종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故)박동진 명창을 추모하는 제자들의 열창속에 1부 - '적벽가(적벽가)', 2부 - 성서판소리 '예수전'이 공연되었다.



성서판소리 '예수전'은 예수의 일생을 극작가 고(故) 주태익 선생이 판소리 사설체로 쓴 「예수전」에 명창 박동진 선생이 곡을 붙인 것으로 1부는 '구주탄생', 2부는 '갈릴리의 봄', 3부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특별 초청공연으로 '사물광대'가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펼쳐 관객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 사물광대 : 첫 번째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국악계의 주목을 받은 이들은 1988년 김덕수패 사물놀이로 부터 "사물광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며 첫 번째 공식제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책사 소개



公州文學 2007년 제19집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공주문학 19집이 공주문학 회원들의 정성스런 내용을 담아 발간되었다. 1988년부터 발간하여 19번째 책인 공주문학 책자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이극래 회장의 머리말로 시작하여 가을 시화전, 시, 독후감, 동화, 수필, 평론, 청소년 백일장 등으로 꾸며져 있다.



公州女性文學 2007 제12집

공주지역 문학여성모임인 '공주여성문학회' 회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으로 모아 12호가 발간되었다. 공주여성문학회의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 담긴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자이다.



한 걸음 뒤에서 2007 제18집

공주지역 여성문학모임인 '금강여성문학동인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아 제18집이 발간되었다. 공주인들의 따뜻함이 묻어있는 포근한 공주지역 여성들의 책자이다.

뮤지컬 '죽은 시인의 사회' 공연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주최하고
공주영상대학(연출 송형중)이 주관하는
뮤지컬 '죽은 시인의 사회'가 2007년
11월 28,29일 이틀간 공주문화원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수능을 끝낸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희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이번 공연은 미래의 주
역이 될 우리지역의 청소
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
가 될 수 있는 공주고·
공주여고 학생들의 따뜻한
격려 참여로 성황리에 개
최되었다.

‘유순식 초대전’ 공주문화원에서 열려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송년을 보내는 마음으로 공주문화원 (원장 정재욱)에서는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국미술교육연구회 회장인 유순식 화백 초대전을 마련했다.

유순식 화백은 추상미술의 다양한 경향을 포괄하는 원초적 조형미를 추구하며, 딱딱함과 부드러움, 정형화된 구성과 비정형의 표현, 기하학적 추상과 옅고더러운 페인팅, 의도적 구성과 우연의 효과와 같은 서로 상충되는 의미와 이미지를 한 화면에 접합시켰다.

이러한 관계의 결합은 서로 충돌 혹은 조화를 이루면서 화면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며,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것이 유순식 그림의 특징이며 매력이다.

정재욱 공주문화원장은 “유화백의 작품세계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순식 화백은 공주시 의당면 출신으로 공주시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천여중·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전을 비롯한 공주국제미술제 등 수많은 단체전과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2007 최선무용단의 "씨알"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주최하고 최선무용단, 예인촌이 주관하며 충청신문이 후원하는 예술하는 공주 사람들 '예인촌' 2007년 마지막 정기공연이 12월 16일 일요일 저녁 7시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춤 최선 무용단의 춤이 있는 풍경 "씨알"이란 제목으로

'화관무', '검무', '진도북춤', '강강수월래', '부채춤' 등 매우 뜻깊은 무대를 마련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정재만 교수의 한국춤의 즉흥성, 흥과 멋, 신명 등을 주제로 한 '허튼 살풀이' 춤으로 많은 갈채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민속춤에서 가장 신나고 흥겨운 춤인 진도북춤이 끝났을 때 관객들의 커다란 박수와 호응으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고, 마지막 무대인 '어울림'은 시물놀이의 역동적 소리와 우리 춤의 화려한 율동이 어우러져 활력 넘치는 가락과 아름다운 테크닉을 연희했다.



국제결혼가정 가족교육 바로 아는 국적법과 배우자 이해교육

2007 국제결혼가정 가족교육이 12월 14일 오후 2시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근들어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국적법, 결혼이민자 부부의 행복만들기,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육아 등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낯선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 간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함께 해결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

신용희 개인전 ‘공주의 전통제례’

향교, 충현서원 등 전통제례 조명

공주 지역의 전통문화를 사진으로 꾸준히 기록해 오고 있는 신용희씨(금강뉴스 대표)의 네 번째 개인전 ‘공주의 전통제례’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전시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주문화원 2층 대 전시실에서 열렸다. ‘민간신앙으로 본 계룡산’, ‘공주마을 지킴이’, ‘충청남도 전통공예 사진전’에 이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공주문화’ 두 번째 시리즈다.



신용희씨는 이번 전시에서 향교, 단종과 충신열사, 그리고 고려 말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아은 길재를 비롯한 104위의 충혼의백(忠魂義魄)을 모신 숙모전과 그 외 덕천군 사우, 용문서원, 충현서원, 충효사, 충렬사, 고간원, 오씨 금양단, 노씨 삼의사, 송의사, 명탄서원, 단군의 위패를 모신 태상전 등의 제례를 앵글에 담았다.

윤여헌 공주향토문화연구회장은 “선조들의 정신을 다시 새기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숭고한 의식을 신용희씨가 사진으로 기록한 것은 향토사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곧 세계화로 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희 씨는 “우리의 제례의식을 담은 사진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조상들의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작시

문화원 소식

금강교

심 우 택

철다리 둥근 달 떴다.

금강

구비-구비-구비

달배 띄워 놓고요

맑은 물 뿜내며

굼실-굼실-굼실

금강교 지나가네

오색 꽃단

금강교 백사장

밤새들이 날아들어 멈추며

큰 새는 큰대로 짝짓고

작은 새는 작은대로 짝지어

사랑노래

난간 잡고 혼자 듣노라

저-달

외로이 떴구나.



할아버지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정 그 림

920호실 오늘도 찾아가 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눈물이 흐릅니다. 한 평생 밭농사 일에 끌려 사시다 이제 좀 쉴까 하니 병원 병실에 갇혀 계신 그분의 답답한 마음 아무도 몰라 눈물이 흐릅니다. 920호실 내일도 찾아가 봅니다. 문 앞에서만 보아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평생 지식 위해 희생하시다 이제 좀 놀아볼까 하니 주사 바늘에 묶여 계신 그분의 육체적 고통 아무도 몰라 눈물이 흐릅니다. 그 바늘 꽂힌 거친 손을 보니 나에게 끝없이 넓기만 하던 할아버지가 계신 초라한 시골집이 그림습니다. 두부, 호박 동동 띄운 할아버지와 먹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그림습니다. 낡은 고무신 발자국 찍힌 할아버지와 걷던 뒷산 오솔길이 그림습니다. 920호실 지금 찾아가 말하렵니다. 너무 깊이 박혀 꺼낼 수 없던 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고장 공주

봉황중학교 3학년 강 성 배

“왜 공주로 수학여행을 왔을까?” 우리 친구들이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을 지날 때마다 하는 얘기다. 나 또한 공주에 살면서 공주에 대한 불만만 쏟아냈었다. 도시가 너무 작아 문화시설이 없다느니, 너무 낙후된 곳이라느니.... 하지만 요즘 나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공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며칠 전 누나의 여중 소식지인 ‘예지림’을 읽다가 타지에서 전학 온 학생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 학생은 경기도에서 전학 온 학생인데, 공주로 전학 온 후 신비한 풍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과연 이 학생을 감동시킨 공주의 ‘그것’은 무엇일까?

공주의 ‘그것’ 첫 번째는 바로 금강이다. 금강은 중부지방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안락처이다. 공주 또한 금강에 의해 생성된 중류 분지이며 금강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도시이다. 시민의 쉼터인 둔치 공원, 아름다운 경치, 다양한 생태 환경과 같이 공주는 금강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도시가 아닐까 한다. 수도나 문명이 강을 따라 형성되었던 이유처럼 공주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은 백제의 유적이다. 백제의 고도였던 공주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문화도시이다. 정작 공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는 도시에 문화재 하나 없다면, 아무리 크고 번화한 도시일지라도, 오래된 문화재에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공주는 고대 시대 때부터 백제의 고도였으며, 고려 조선시대 때에도 중부지방 최대의 도시였다. 더욱이 최근 부여와 같이 백제문화재를 개최하여 전통을 더욱 자세하고 활동적이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지림’에서 그 학생은 공산성 수문병 교대식을 가 본 후 ‘백제의 영혼이 깃든 신비한 도시’라고 표현했듯이 공주는 역사 깊은 백제의 도시이며, 아직도 살아 있는 중흥의 도시이다. 마지막 ‘그것’은 편리한 생활환경이다. 혹자는 공주는 중소도시이며, 수문교통의 쇠퇴로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는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 환경의 시대이다. 물론 문화생활이나, 인문환경 등은 대전이나 천안이 우수하겠지만 문화성이 우수한 환경이 잘 보존된 공주가 유리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주는 낙후된 면보다는 좋은 면이 더욱 많다. 우리는 공기가 존재해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듯이 공주의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
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
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
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주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 :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

발행인_정재욱 |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희, 신용희, 김춘원 |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전화 041 · 852 · 9005, 852 · 7600 | 인쇄처_공주신문사(전화 041 · 853 · 8111)

2008 JAN/FEB